

트레이딩 기본 개요

거장의 트레이딩 전략을 배우고, AI로 검증한 나만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든다

BLOCK 1

무엇이 돈을 버는가

 훈련장의 거인들

INDEX

01

트레이딩이 처음이라면

5분 토대

02

왜 AI 시대에 '개념'인가

오리엔테이션

03

승률 · 손익비 · 기댓값 · 사분면 · 계좌모습

트레이딩 개념·용어

04

3대 철학

리스크 · 이익 · 자본

05

마무리

마법사의 한마디

01

기본개요

트레이딩이 처음이라면

5분 토대

"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"는 쉬운데 — 왜 열에 아홉이 잃을까?

감정에 휘둘리는 매매 습관이 당신의 계좌를 갹아먹습니다

01

트레이딩

가격이 오르내릴 때 사고팔아 차익을 노리는 일.

02

진짜 어려운 건 언제 사고파느냐

대부분 감·뉴스·소문으로 정한다.

03

감정의 함정

오를 땐 더 욕심내고 내릴 땐 못 끊는다 → 감정이 결정하면 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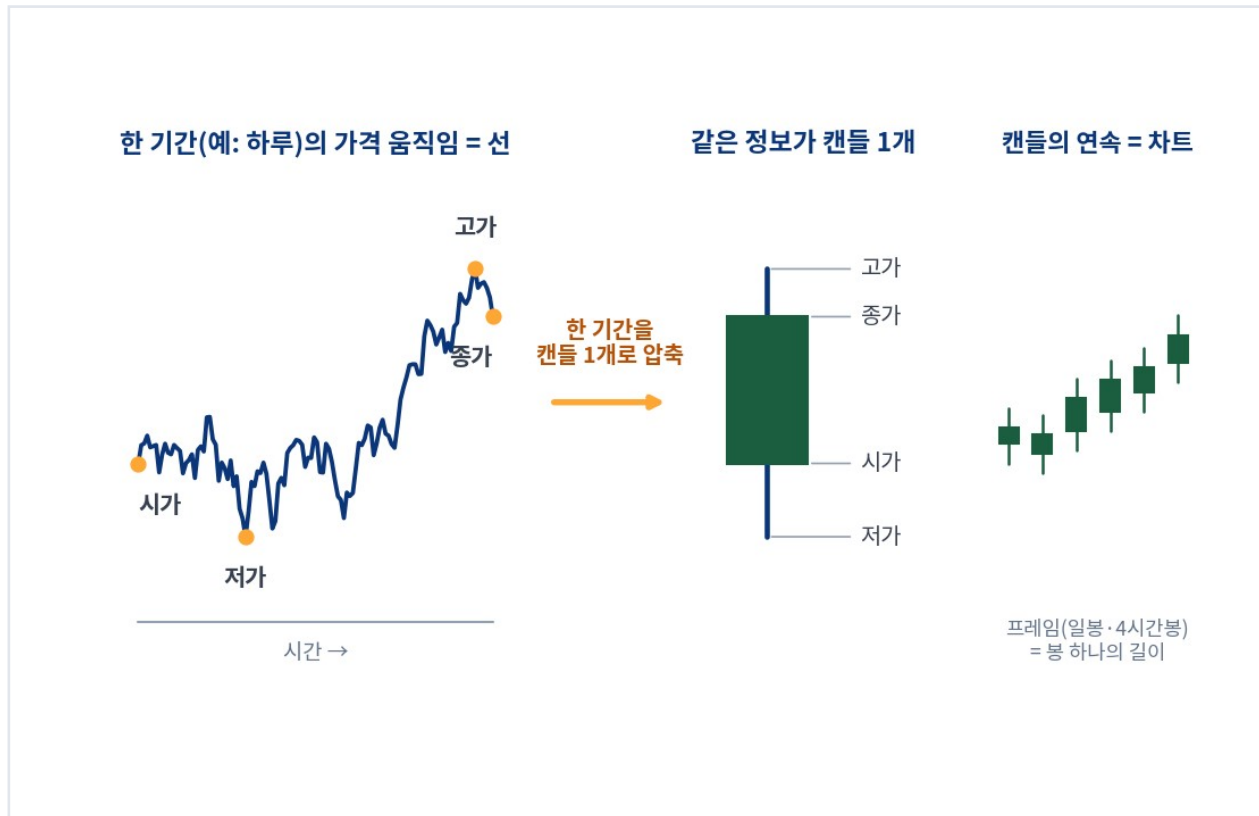
감으로 하면 도박, 규칙으로 하면 시스템

감정을 배제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나만의 매매 원칙 만들기

시스템 트레이딩	규칙	규칙이 있으면 감정이 낄 틈이 준다
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사고판다.	"언제 살까 · 언제 팔까 · 얼마를 걸까"를 미리 적어두는 것.	이 강의가 만드는 건 나만의 규칙(시스템).

차트는 점치는 그림이 아니라, 규칙이 작동하는 무대다

주관적인 해석을 버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규칙에 집중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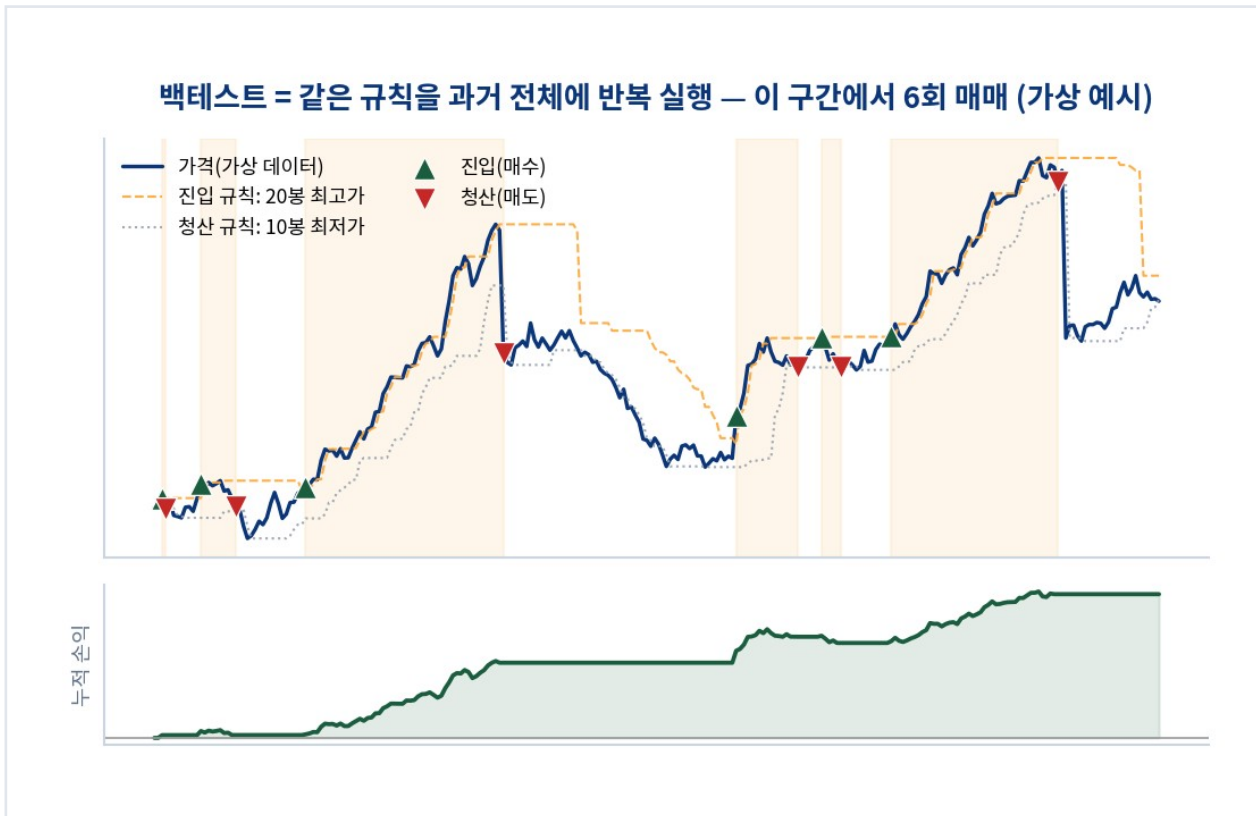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캔들봉 1개** 한 기간의 시·고·저·종(OHLC). 예: 일봉 1개 = 하루.
- 2** 축은 가로=시간, 세로=가격. 프레임(일봉·4시간봉)은 한 봉의 길이.
- 3 우리는 차트를 해석하지 않는다** 규칙(예: 20일 고가 돌파, 종가가 이동평균 위)이 가리키는 지점만 본다.
- 4** 그래서 "이 모양이면 오른다"식 패턴 점치기는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다.

실제 돈을 넣기 전에 — 과거 데이터로 규칙을 돌려본다

AI가 짠 코드로 검증하고 사람의 눈으로 확신을 더하는 과정



핵심 근거

- 1 백테스트(과거 데이터로 규칙을 시험)** "그때 이 규칙대로 했다면 어땠나"를 보는 것.
- 2 코딩이 필요하지만** 코드는 AI가 짜준다(이 강의의 핵심).
- 3** 단, AI가 짠 백테스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람이 가린다(뒤에서 깊게).

트레이딩이 처음이라면

- 1 "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"는 쉬운데 왜 열에 아홉이 잃을까?
- 2 감으로 하면 도박, 규칙으로 하면 시스템
- 3 차트는 점치는 그림이 아니라, 규칙이 작동하는 무대다
- 4 실제 돈을 넣기 전에 과거 데이터로 규칙을 돌려본다

02

기본개요

왜 AI 시대에 '개념'인가

오리엔테이션

이 강의는 "월 30% 버는 법"이 아니다 — MDD를 견디며 양의 기댓값을 오래 반복하는 법이다

약속하지 않는 것

수익 보장 · 필승 전략 · 화려한
누적 수익률

약속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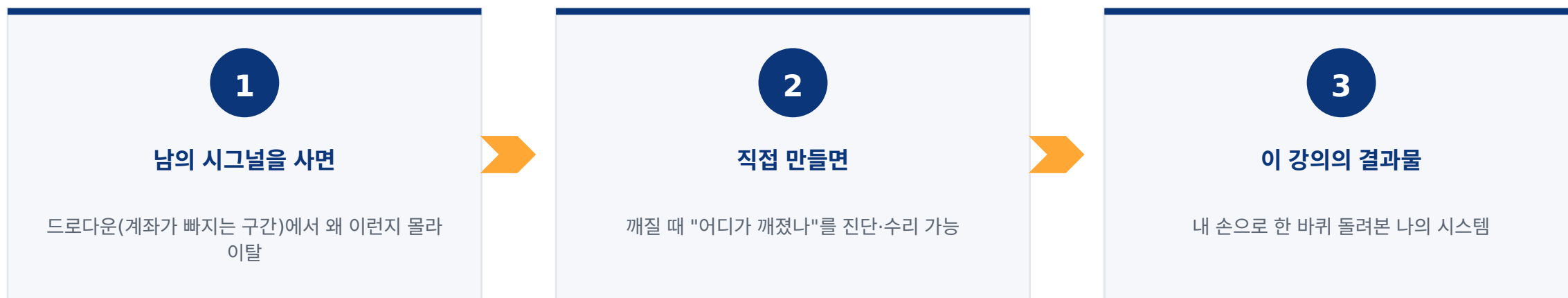
가짜 백테스트에 속지 않는 눈 ·
나만의 규칙 · 검증·운영 능력

누적 +130%도 실제로는
연 9%일 수 있다 — 누적
착시는 5주차에 숫자로
증명한다

기대치가 현실이 될 때,
규칙을 지킬 수 있다 —
환상은 이탈의 씨앗

당신은 전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입니다

시그널 의존을 넘어 스스로 진단하고 수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힘



AI는 "어떻게"를 푼다. "무엇을·왜"는 당신 몫이다

도구의 효율을 넘어 전략의 본질을 정의하는 능력이 수익을 결정합니다

01

코드 작성·백테스트·문서화

AI가 빠르고 싸게 한다(How)

02

무엇을 만들지, 왜 그게 돈을 버는지

사람이 정의(What/Why)

03

요구사항의 무게

AI는 틀린 요구사항도 완벽하게 구현한다 →
요구사항이 곧 실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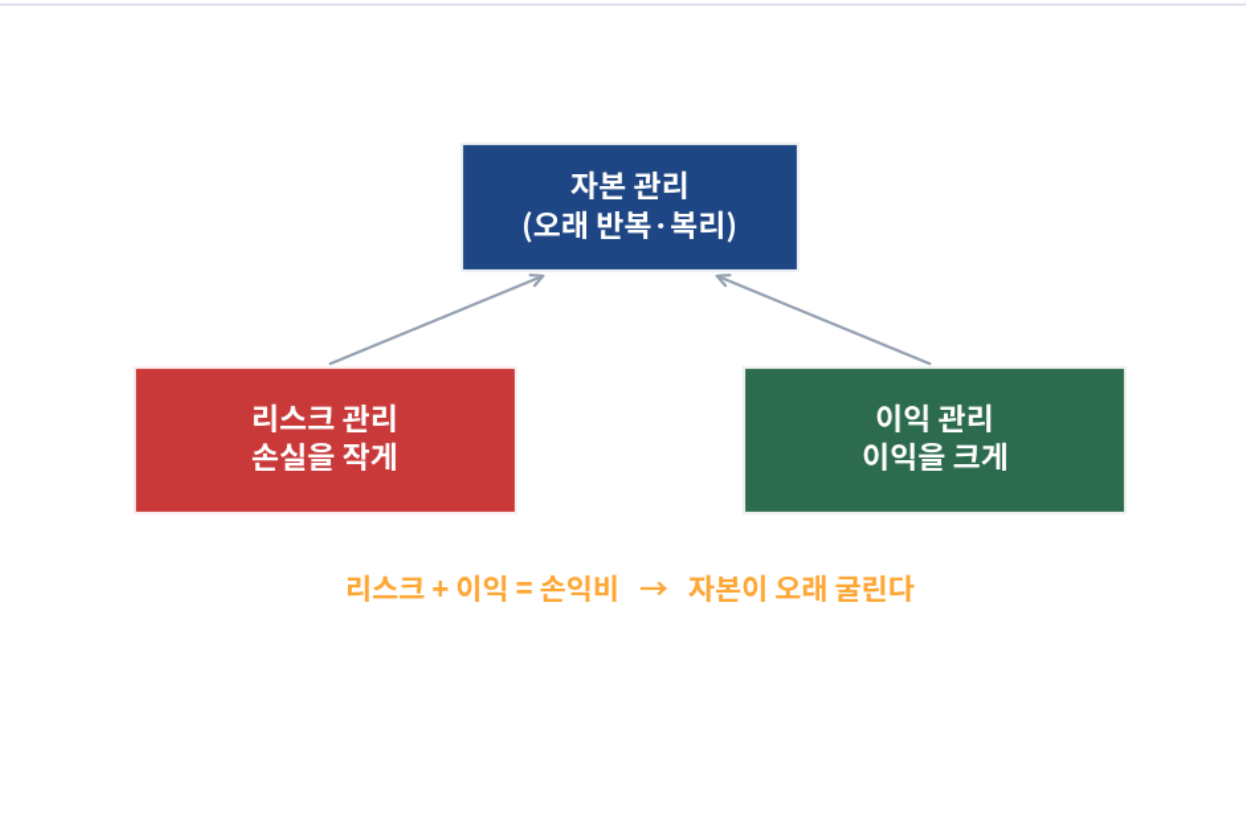
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 — 개념이 거짓말 탐지기다

데이터의 함정을 꿰뚫는 통찰력이 수익의 실체를 결정합니다

룩어헤드(미래 정보 누수)	생존편향	과최적화·환각	→ 셋 다 "예쁜 결과"로 위장
백테스트가 마법처럼 좋아짐	살아남은 종목·전략만 본 데이터	과거에만 완벽한 곡선, 없는 사실 지어내기	개념 없는 사람은 그대로 믿는다

세 강의가 모여 "E = W×R - (1-W)" 한 줄에 도착한다

개념과 수식 그리고 철학이 완성하는 트레이딩의 절대 원칙



핵심 근거

1 강의 1 오리엔테이션 왜 개념인가(지금 여기)

2 강의 2 기댓값의 언어 승률·손익비·사분면·계좌곡선

3 강의 3 3대 철학 리스크·이익·자본으로 그 수식을 운영

코드는 외주, 판단은 자급 — 그래서 개념부터다

- 1 AI 시대의 희소 자원** 구현이 아니라 판단(개념)
- 2** 개념이 있어야 AI의 거짓말(룩어헤드·생존편향·과최적화)을 잡는다
- 3 다음 강의** 그 판단의 언어 = 승률·손익비·기댓값

03

기본개요

승률 · 손익비 · 기댓값 · 사분면 · 계좌모습

승률은 "얼마나 자주 맞나", 손익비는 "맞으면 얼마나 크게 버나"

수익의 크기와 확률의 조화가 지속 가능한 계좌를 만듭니다

01

승률 W

이긴 거래 수 ÷ 전체 거래 수 (예: 100번 중 40번
→ 40%)

02

손익비 $R = \text{평균이익} \div \text{평균손실}$ (예

$300/100 \rightarrow 3.0 = "3R"$)

03

R -멀티플 약속

손실 1회 = $1R$, 이익은 R 의 배수로 말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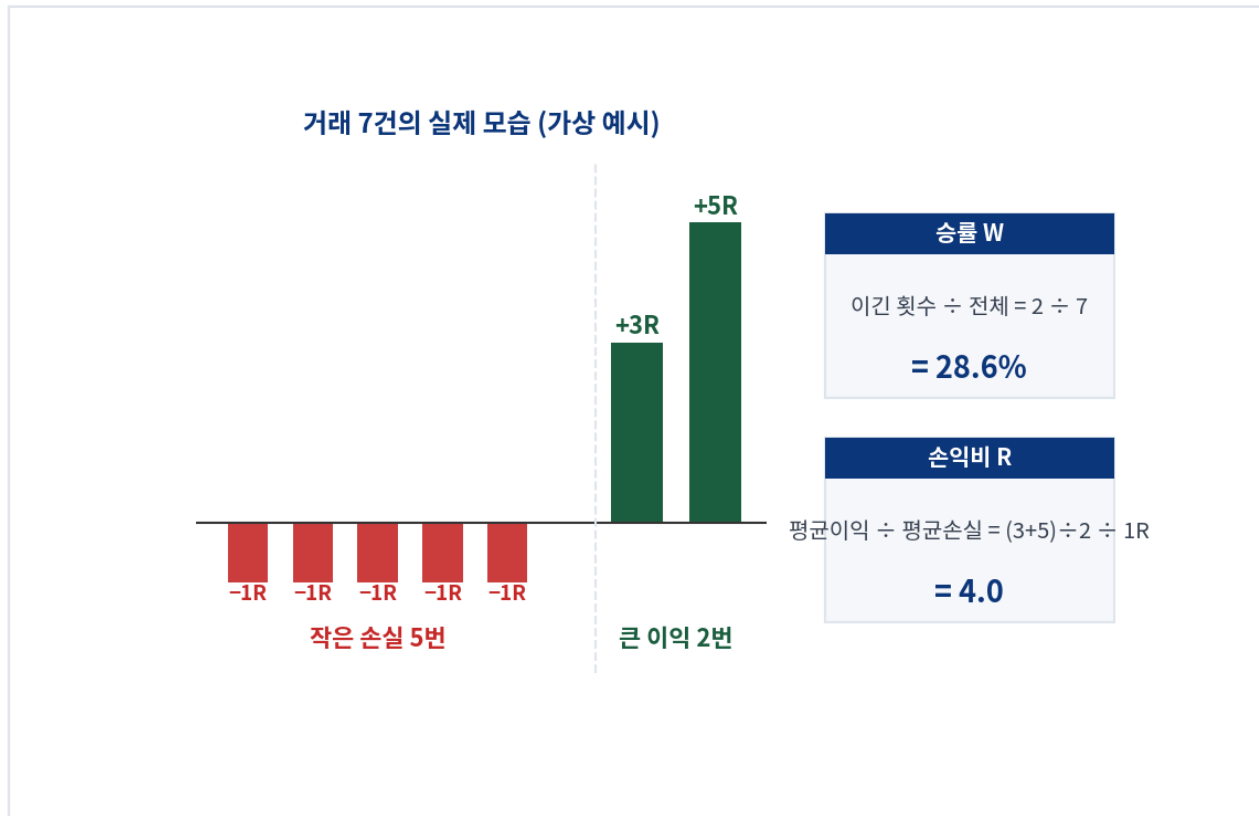
이익과 손실이 같은 크기면 — 승률 하나로 끝난다

손익비가 동일할 때 수익을 결정짓는 유일한 핵심 지표

사고 실험	절반(5승5패)보다 자주 이기면 번다	직접 넣어보기(1판=1R)	현실은 다르다
가위바위보처럼 이기면 +1, 지면 -1(대칭). 10판 중 몇 번 이겨야 비길까? → ___번	"승률만으로 충분한" 유일한 세상.	6승이면 +___R / 7승이면 +___R	현실 트레이딩은 가위바위보가 아니다(이익≠손실) → 다음 장.

손익비 = "이길 때 버는 크기" ÷ "질 때 잃는 크기"

낮은 승률을 압도하는 수익 구조의 핵심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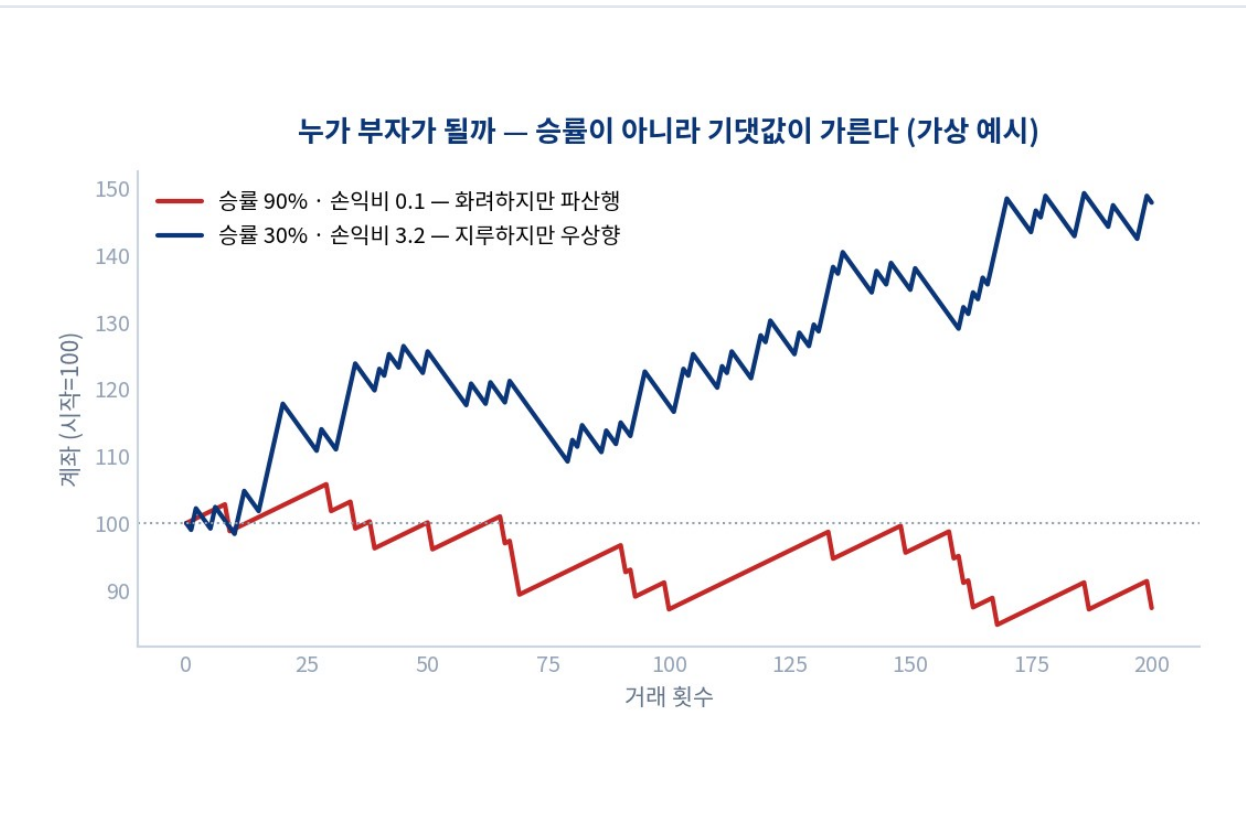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**손익비 R = 평균이익 ÷ 평균손실** (예 (+3R, +5R) 평균 4R ÷ 1R = 4.0 → "이길 때 4배 크게")
- 2 **주의** 합계가 아니라 평균 — 합계 비율(총 8R ÷ 총 5R = 1.6)은 Profit Factor라는 별개 지표. 기댓값 공식의 R는 평균 기준
- 3 **승률과 다르다** 승률 = "얼마나 자주", 손익비 = "맞을 때 얼마나 크게"
- 4 손익비가 크면 자주 틀려도 살아남는다 (→ 다음, 기댓값)

승률 90% 시스템 vs 승률 30% 시스템 — 누가 부자가 될까?

수익의 핵심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와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



핵심 근거

- 1 직관 당연히 90%? — 이 강이 깰 1순위 미신
- 2 답은 "승률만으로는 알 수 없다"
- 3 반전은 네 장 뒤에 (먼저 두 숫자를 정의하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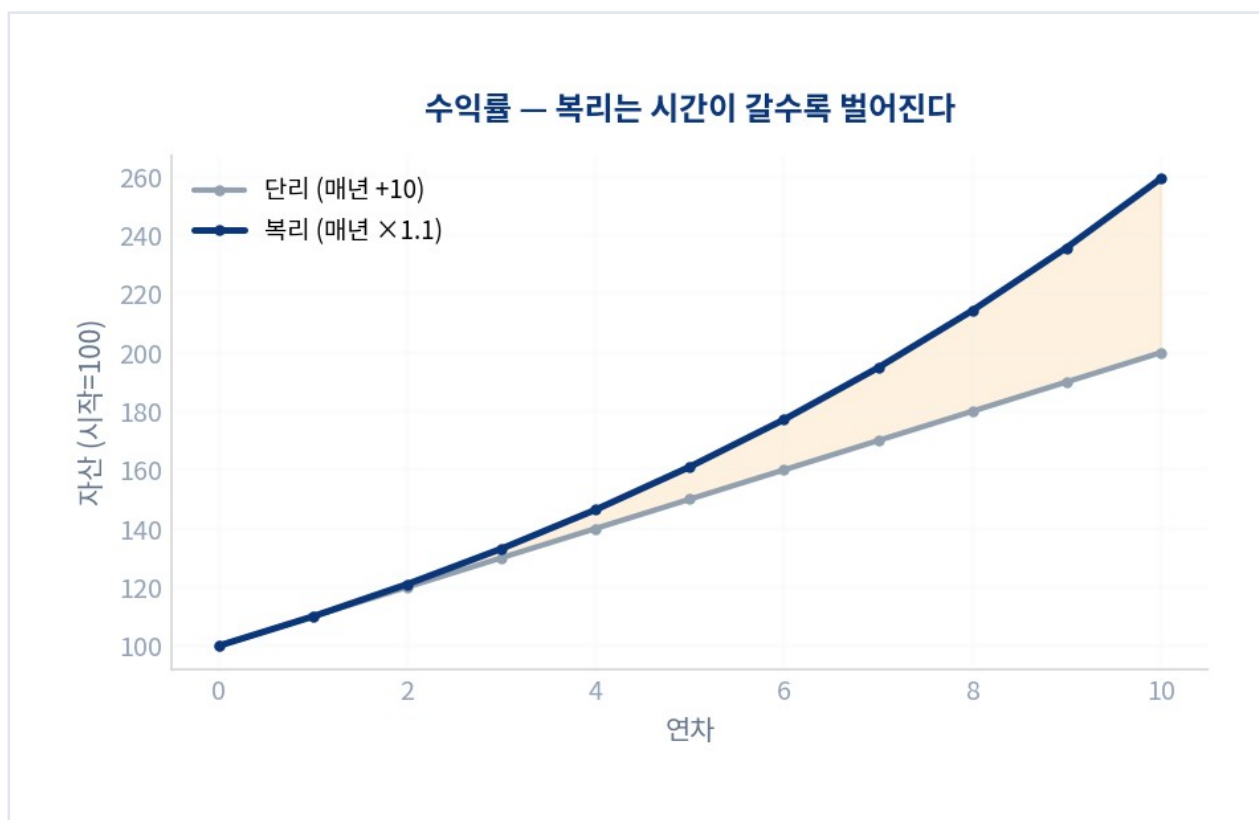
주식·코인은 이익 ≠ 손실 — 그래서 규칙으로 손익비를 설계한다

낮은 승률로도 수익을 내는 비대칭 전략의 핵심 원리

시장은 이익·손실 크기가 제각각	규칙 예	손익비 3이면 승률 30%만 돼도 번다	통계로 확인
그래서 "손익비(이길 때 크기 ÷ 질 때 크기)"가 생긴다.	신호에 매수 → -3%면 손절 / +9%면 익절 → 손익비 = $9 \div 3 = \underline{\quad}$	비대칭을 내 편으로.	과거 데이터에 이 규칙을 돌려 승률·손익비를 센다(= 백테스트).

수익률 = 내 돈이 몇 % 불었나 — 손익비와 다른 개념

단순한 수익 계산을 넘어 복리의 마법과 연평균 성장률을 이해하십시오



핵심 근거

- 1 수익률 = 번 돈 ÷ 투자한 돈 (예 100만원 → 120만원 = +20%)
- 2 손익비(거래당 크기 배수)와 전혀 다른 숫자 — 헛갈리지 말 것
- 3 단리(원금에만) vs 복리(이자에 다시 이자) — 갈수록 복리가 압도
- 4 연수익률(CAGR) 1년 평균 복리 수익률

기댓값

$$E = W \times R - (1 - W)$$

이 한 줄이 +냐 -냐 — 거래할수록 벌지, 죽을지가 갈린다

E = W×R 만 보면 절반이다 — 손실 항까지가 기댓값

$$E = W \times R - (1-W)$$

W 승률 R 손익비 E 기댓값

$E > 0 \rightarrow$ 거래할수록 번다 $E \leq 0 \rightarrow$ 거래할수록 죽는다

핵심 근거

- 1** $E = W \times R$ 이길 때의 기대이익만 계산 — 승률 W로 R을 벌 확률적 이익
- 2** $-(1-W)$ 질 때의 기대손실 — 질 확률(1-W)만큼 -1R을 잃는다
- 3** **완전한 기댓값** 기대이익 - 기대손실 — 손실 항을 빼먹으면 모든 전략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인다
- 4** **예** $W=30\% \cdot R=3 \rightarrow 0.9 - 0.7 = +0.2R$ (이익 항만 보면 0.9로 착각, 가상 예시)

25%

손익비 3이면, 25%만 맞아도 본전이다

본전 승률 = $1 / (1 + \text{손익비})$ — 손익비가 승률을 사준다

승률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다 — 항상 손익비와 짝으로

낮은 승률로도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손익비의 마법

01

90% 시스템

평균이익 10·평균손실 100 → $E = 0.9 \times 0.1 - 0.1 = -0.01R \rightarrow$ 죽는다

02

30% 시스템

평균이익 500·평균손실 100 → $E = 0.3 \times 5 - 0.7 = +0.80R \rightarrow$ 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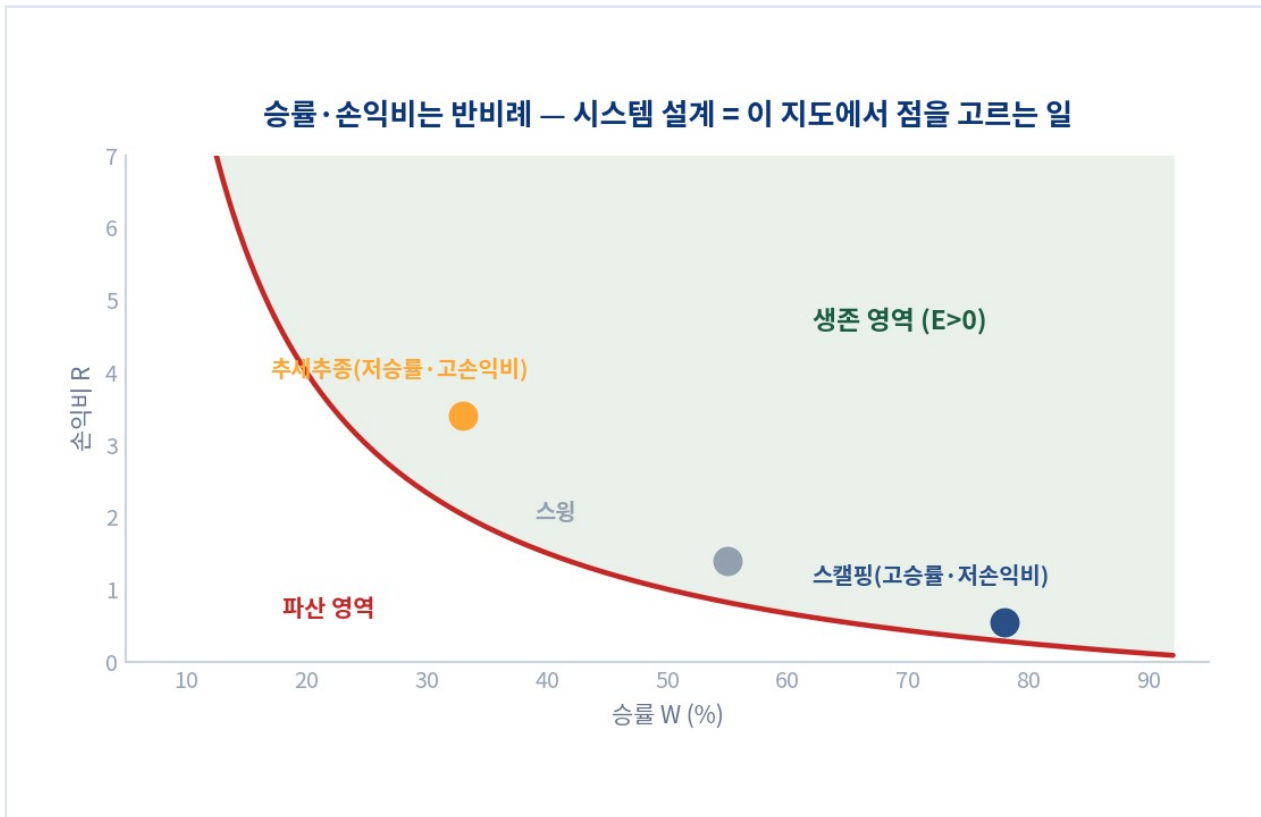
03

S10의 답

승률만 묻는 사람이 초보다

승률과 손익비는 보통 반비례 — 시스템 설계는 그 점을 고르는 일

기댓값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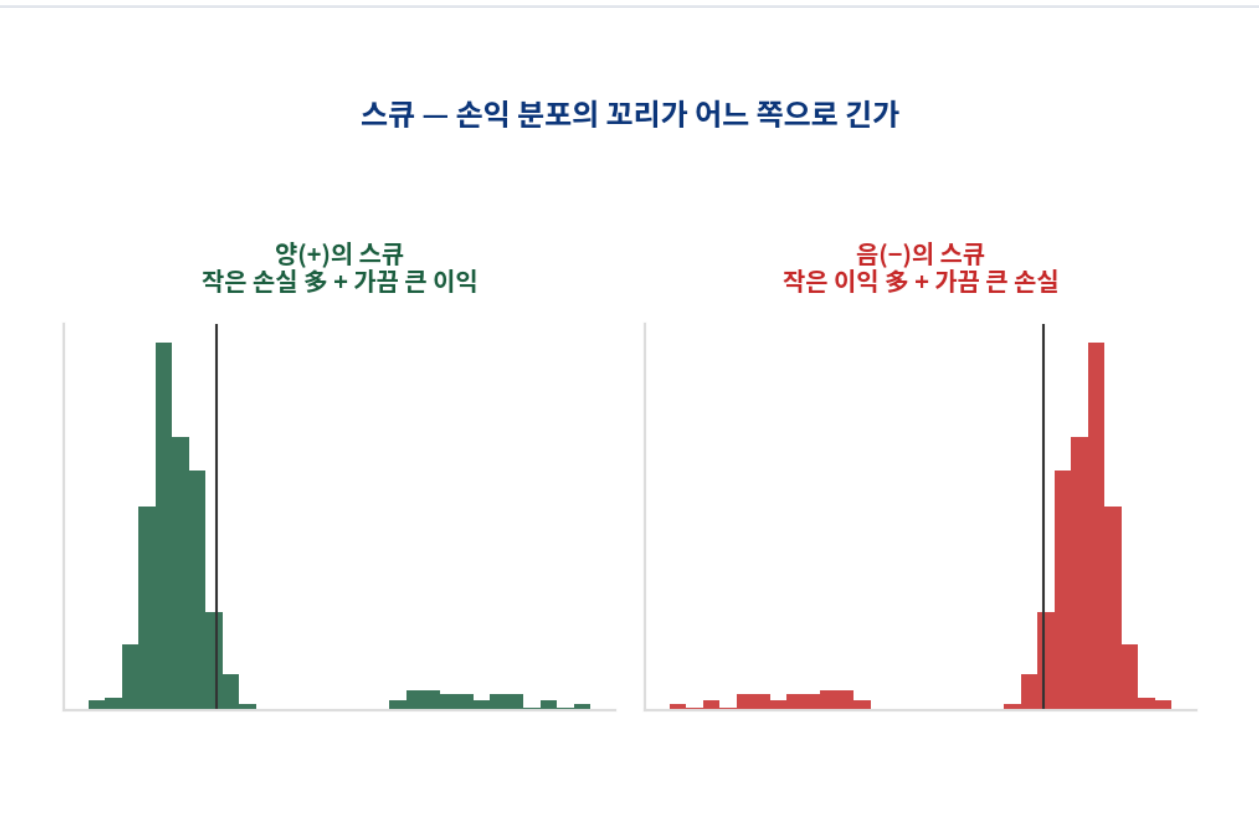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익절 일찍** 승률 $\uparrow$ 손익비 $\downarrow$ / 이익 끝까지 $\rightarrow$ 승률 $\downarrow$ 손익비 $\uparrow$ (추세추종의 선택)
- 2 손절 넓게** 승률 $\uparrow$ 손익비 $\downarrow$ / 손절 좁게 $\rightarrow$ 승률 $\downarrow$ 손익비 $\uparrow$
- 3 설계** 가능한 조합 중 기댓값(E)이 최대인 점을 택하는 일

스큐 = 손익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 (쉽게: 큰 사건이 이익 쪽이냐 손실 쪽이냐)

작은 수익의 반복보다 결정적인 한 방의 방향에 집중하십시오



핵심 근거

- 1 **스큐(왜도) = 분포의 비대칭** 어느 쪽 꼬리가 더 긴가
- 2 **양(+)
의 스큐** 이익 쪽 꼬리가 길다 → 작게 자주 잃고 가끔 크게 번다
- 3 **음(-)
의 스큐** 손실 쪽 꼬리가 길다 → 작게 자주 벌고 가끔 크게 잃는다
- 4 **어려운 통계 용어지만, 기억할 건 하나** "큰 한 방이 어느 쪽이냐"

네 가지 시스템 — ②추세추종은 "저승률·고손익비" 코너

우리가 사는 자리는 ② 한 칸 — 생사는 대각선이 가른다(다음 장)

↑ 손익비 높음

추세추종 ②

저승률·고손익비 — 자주 틀리고 크게 번다. 우리가 깊게 파는 칸

성배 ①

고승률·고손익비 — 환상. 존재하면 곧 소멸한다

최악 ④

저승률·저손익비 — 즉시 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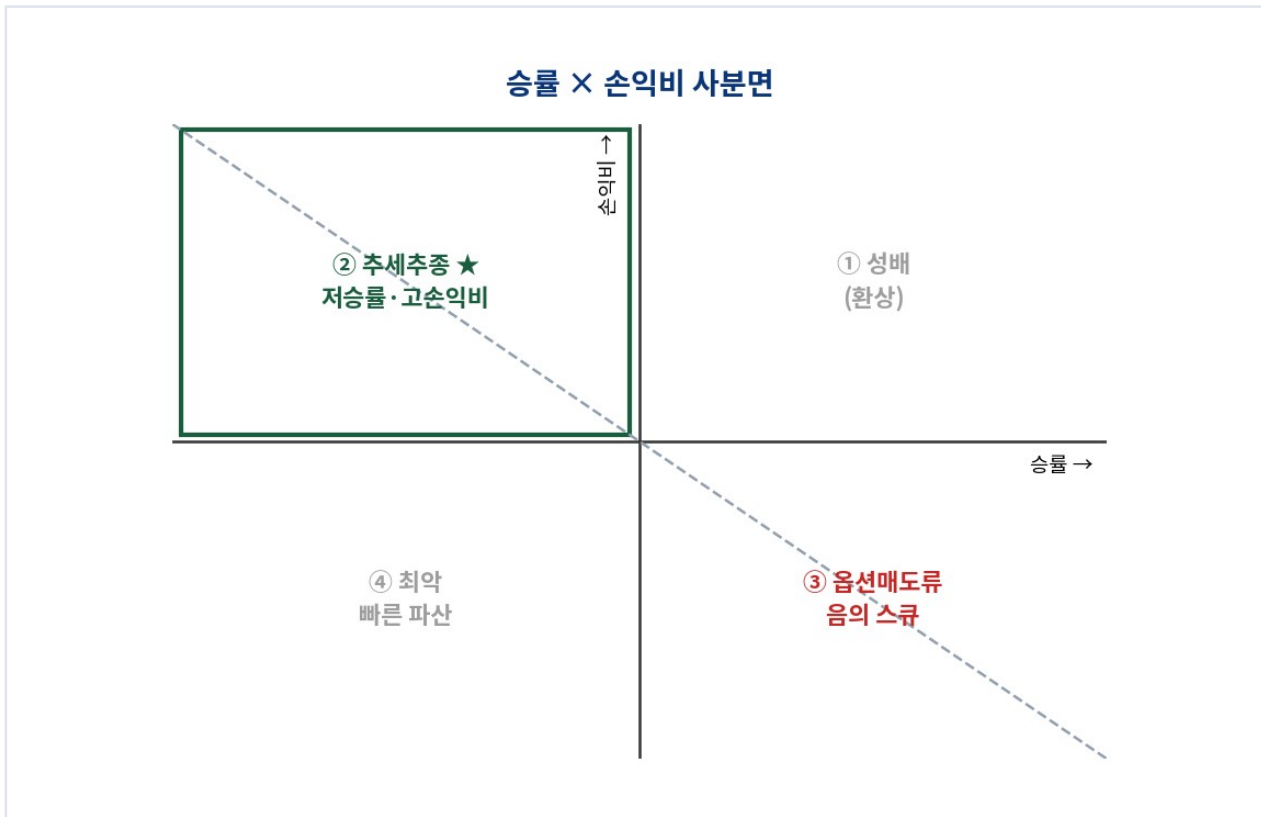
옵션매도·스캘핑 ③

고승률·저손익비 — 예쁘다가 한 방(음의 스쿼 △)

→ 승률 높음

사분면은 "유형"일 뿐 — 생존은 기댓값 대각선($E=0$)이 가르른다

승률과 손익비의 조합이 만드는 수학적 생존의 임계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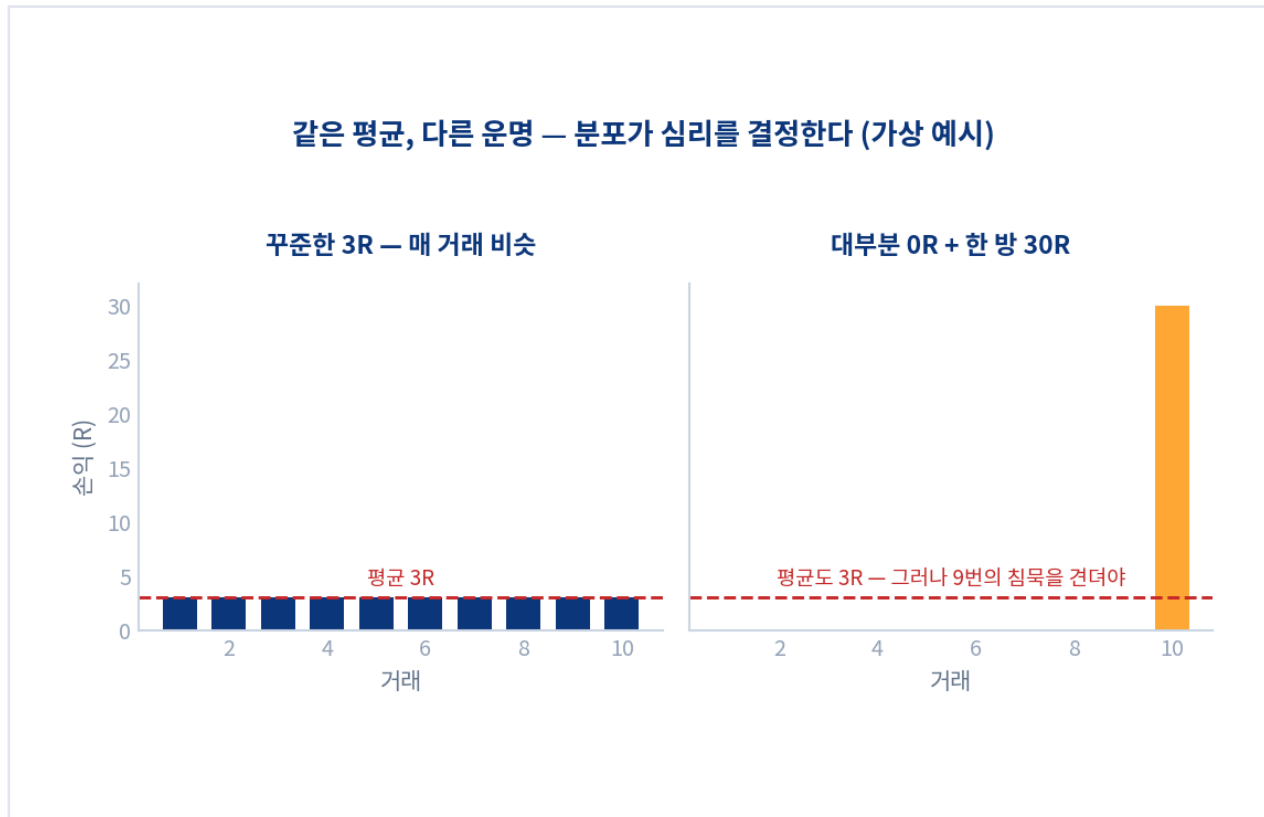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**손익분기선** 손익비 = $(1-W)/W \rightarrow$ 이 선 위는 $E>0$, 아래는 $E<0$
- 2 ②추세추종도 손익비가 충분히 높아야 선 위로 올라간다
- 3 ③옵션매도도 큰 손실 한 방이 선 아래로 떨어준다

같은 3R이라도 "꾸준한 3R" vs "대부분 0R + 한 방 30R"은 운명이 다르다

수익의 분포가 계좌의 생존과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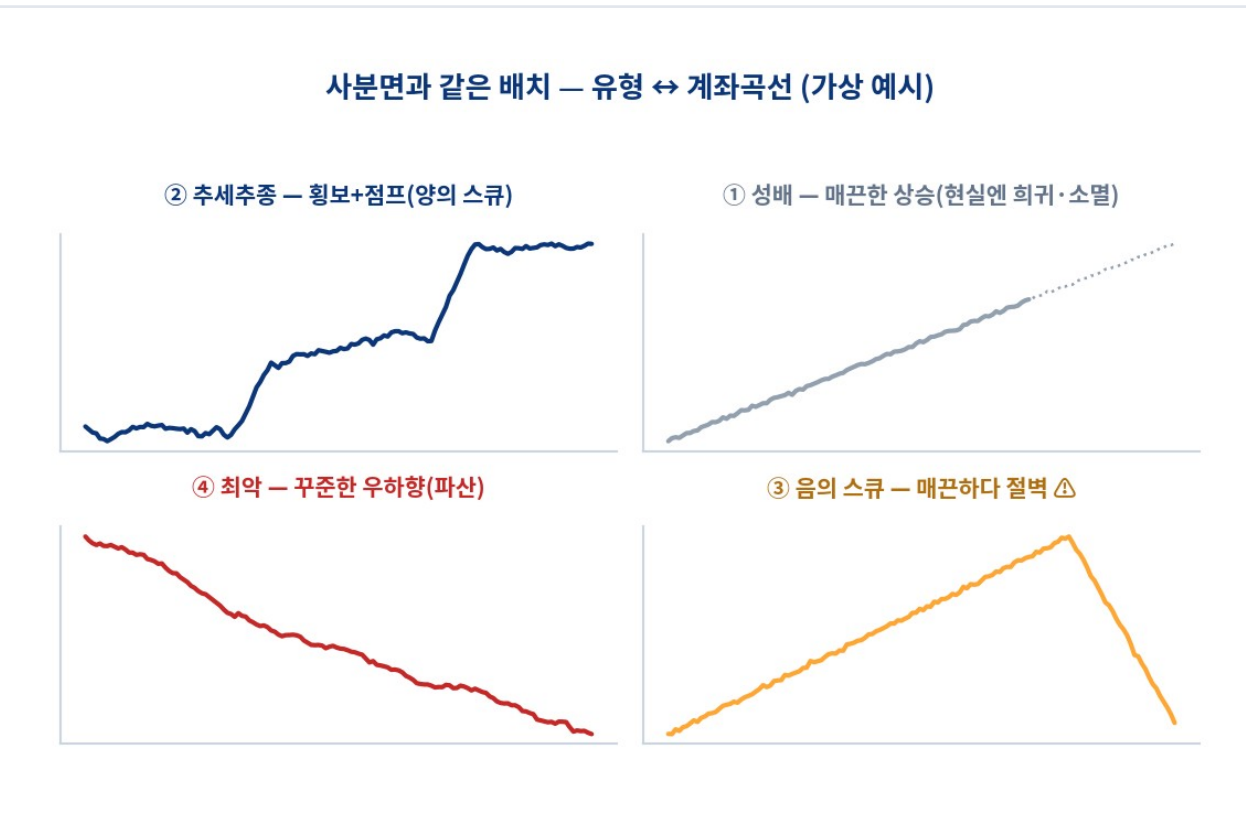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양의 스쿼** 작은 손실 여럿 + 가끔 큰 이익 (추세추종의 건강한 모양, 버티기 쉬움)
- 2 음의 스쿼** 작은 이익 여럿 + 가끔 큰 손실 (△ 한 방에 붕괴)
- 3** 손실 꼬리를 자르면 음의 스쿼가 양으로 뒤집히기도 (→ BLOCK 2 청산과 직결)

사분면의 네 칸은 네 가지 계좌 곡선으로 나타난다

사분면과 같은 배치 — 유형과 곡선을 1:1로 대응해 기억한다



핵심 근거

- 1 추세추종 ② 지루한 횡보 + 드문 큰 점프(계단식) — 양의 스큐
- 2 성배 ① 거의 손실 없는 매끈한 상승 — 현실엔 희귀, 곧 소멸
- 3 최악 ④ 꾸준한 우하향 — 빠른 파산
- 4 음의 스큐 ③ 매끈한 상승 + 갑작스러운 절벽 ⚠

계좌곡선으로 보면 — ② 지루해도 이상향 vs ③ 신나다 절벽

지루한 수익의 안정성과 짜릿한 수익의 위험성을 구분하라

01

추세추종

평소 지루함·의심 → 진짜 위험은 내가 못 버티고 이탈하는 것

02

음의 스쿼

평소 행복함 → 진짜 위험은 큰 손실 한 방 + 과신 레버리지

03

예쁜 곡선(③·①)을 경계하라

행복한 곡선이 종종 가장 위험하거나 가짜

Edge가 없으면 위험관리도 규율도 소용없다

수익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우위를 먼저 검증하십시오

Edge(시장 우위)	카지노	순서	그래서 '검증'이 핵심
반복하면 +가 나오는 행동 = 양 (+)의 기댓값	아무리 좋은 심리·자금관리도 Edge 없는 손님은 장기에 진다	① Edge 확보 → ② 위험관리 → ③ 규율·복리 (Edge가 1번)	내게 진짜 Edge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

승률 하나만 묻지 마라 — 항상 $E = W \times R - (1 - W)$ 로 본다

- 1 좋은 시스템** 높은 승률이 아니라 양(+)의 기댓값
- 2 추세추종** 승률을 버리고 손익비를 키운 게임(②칸, 양의 스쿼)
- 3 곡선의 모양까지 봐야 한다** 내가 건딜 수 있는 모양을 골라라

04

기본개요

3대 철학

리스크 · 이익 · 자본

"리스크 관리" 한 단어로 뭉치면 망한다 — 셋은 다른 것이다

목적·작동시점·측정단위가 모두 다르다 — 뭉치면 셋 다 놓친다

01 리스크

정의

한 거래에서 족지 않기

왜 중요한가

작동시점 = 진입 전 — 손절·사이징이 도구

✓ 손실을 1R로 캡한다

02 이익

정의

이긴 거래에서 최대한 뽑기

왜 중요한가

작동시점 = 보유 중 — 청산 규칙이 도구

✓ 이익은 끝까지 태운다

03 자본

정의

계좌가 오래 살아 복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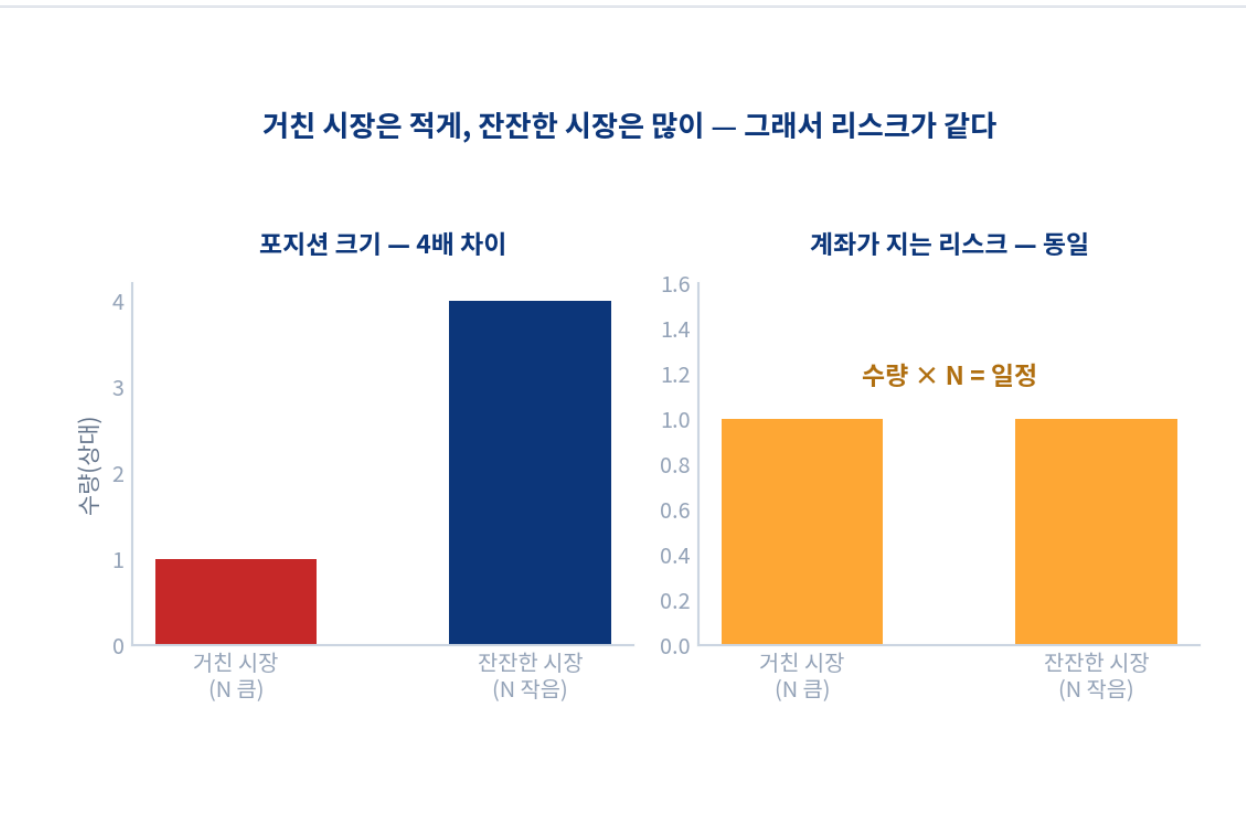
왜 중요한가

작동시점 = 항상 — 포트폴리오·한도가 도구

✓ 파산 확률을 0에 붙인다

내가 통제하는 유일한 변수는 "손실의 크기"다 — 수익은 시장이 준다

리스크를 먼저 확정해야 시장이 주는 수익을 온전히 누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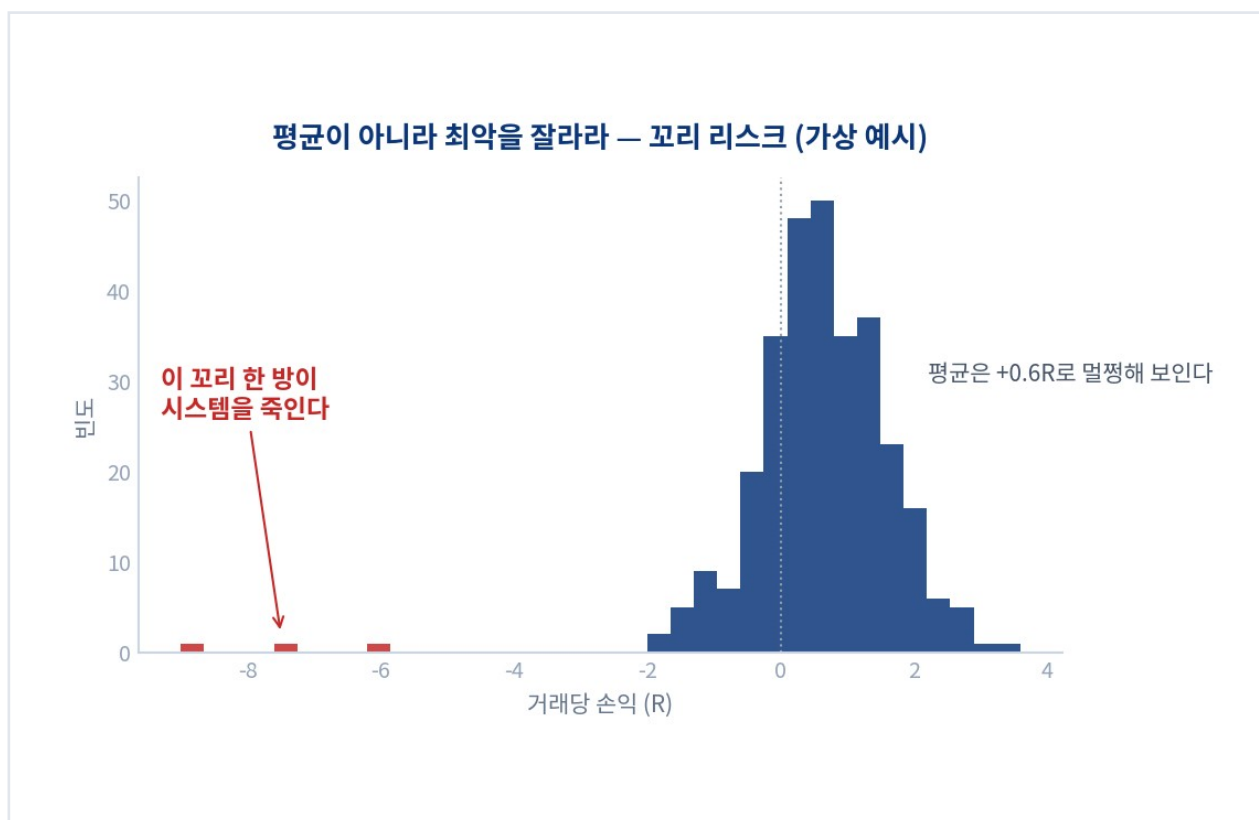


핵심 근거

- 1 설계는 "얼마 벌까"가 아니라 "얼마까지 잃을까"부터 시작
- 2 **도구** 변동성 기반 사이징·고정 손절(구체 수치·규칙은 BLOCK 2 5 대 의사결정에서 정식 정의)
- 3 손절은 예측이 아니라 약속 / "포지션 사이징 = 리스크 사이징"

손실의 꼬리 한 방이 시스템을 죽인다 — 평균이 아니라 최악을 잘라라

단 한 번의 치명적 손실이 계좌 전체를 파괴하기 전 차단하라



핵심 근거

- 1 **✗ "손절을 넓게 잡으면 안 털린다"** 폭을 넓히면 포지션을 줄여야 리스크 유지
- 2 **✗ "승률을 올리면 리스크가 준다"** 별개. 한 방에 죽으면 끝
- 3 **진짜 목표** 평균 손실이 아니라 최악의 손실(꼬리)을 자르는 것

작은 손실은 패배가 아니라 — 게임에 남기 위해 내는 정확한 입장료

자존심을 버리고 자본을 지켜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

손절	생존의 조건	대부분이 잃는 진짜 이유는 자존심	진짜 두려움
"규율이 있다"는 증거. 자본 보존 행위이지 수익성의 반대 아니다.	작은 손실(생채기)을 받아들여야 큰 추세를 잡을 때까지 살아남는다 — 비대칭 손익의 전제.	"내가 틀렸다"를 인정 못 해 손절을 미룬다.	1% 손실이 두렵다면 계좌 전체를 날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. "바라고 기도"는 전략이 아니다.

손실은 빨리 끊고, 이익은 끝까지 태운다(let winners run)

낮은 승률을 압도적인 수익률로 바꾸는 추세 매매의 핵심 전략

01

추세추종 승률 30~45%

소수의 큰 추세에서 돈이 다 나온다

02

도구

추세 청산(돈치안 채널·상들리에)·피라미딩·트레일링 스톱 — 돈치안·피라미딩·트레일링은 W2(추세추종), 상들리에 청산은 W3(수집·수립)에서 정식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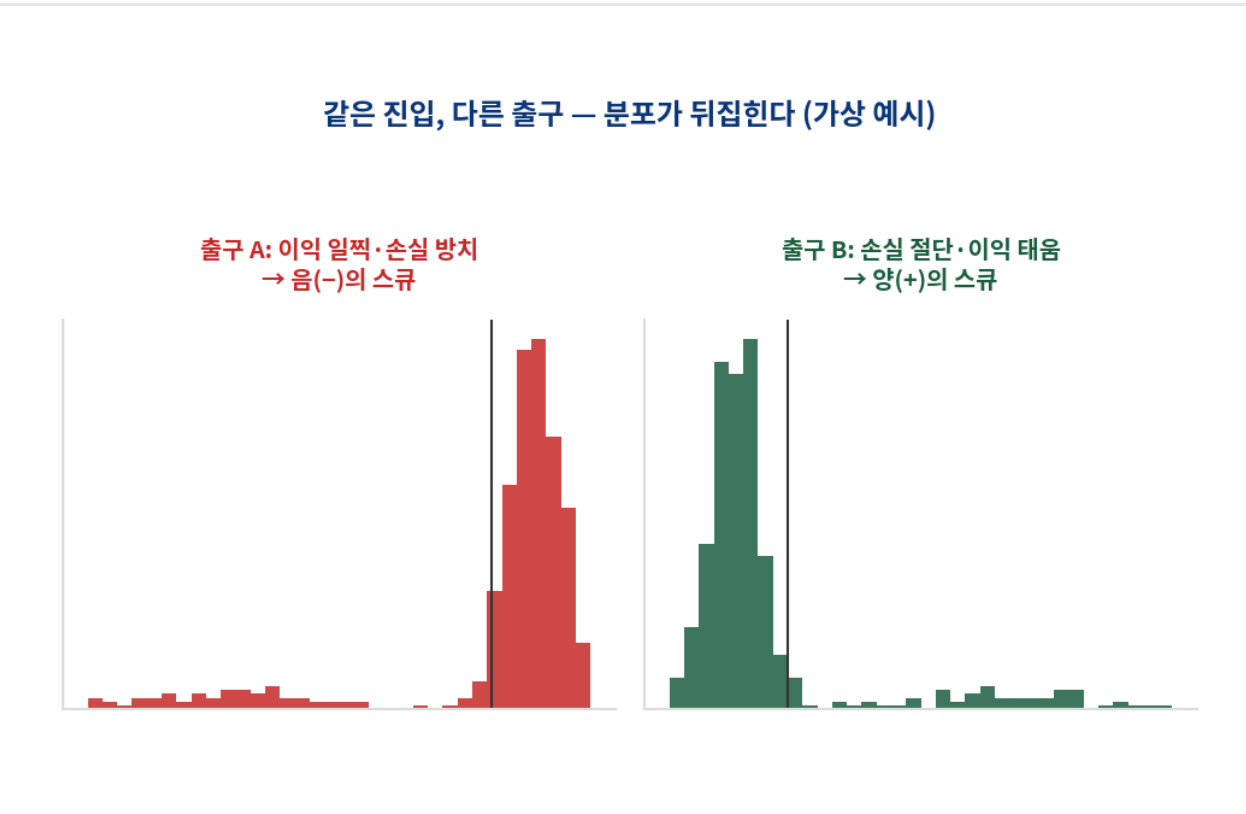
03

청산 기준

"얼마 벌면"이 아니라 "추세가 끝나면"

청산 규칙을 바꾸면 같은 진입인데 페이오프가 +로 뒤집힌다

손절 방식의 변화만으로 수익 분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



핵심 근거

- 1 수익 곡선 긴 횡보(작은 손실 누적) + 짧은 폭발(큰 이익)
- 2 고정 손절 변동성 추적(상들리에) 청산으로 바꾸면
- 3 같은 진입·같은 시장인데 분포가 개선 → 음의 스쿼가 양으로 전환

거래 하나가 아니라 계좌 전체의 곡선으로 생각하라

개별 매매의 승률보다 자산의 생존과 복리 회복력에 집중하라

01

동시 리스크

개별 거래는 다 맞아도 동시에 너무 크게 걸면
계좌가 죽는다

02

복리의 약점

복리는 MDD(최대 낙폭)에 비대칭적으로 취약 — —
50%면 +100% 해야 본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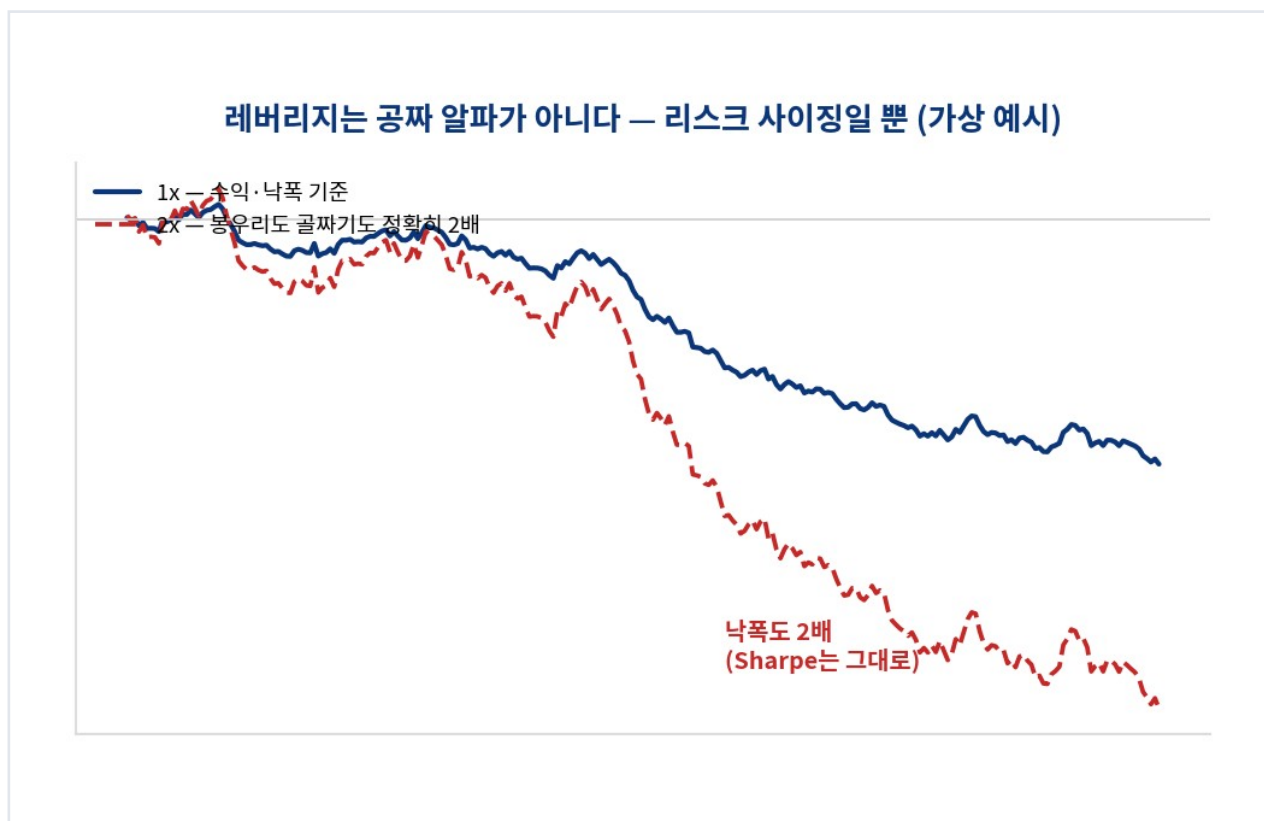
03

도구

동시 리스크 한도, 계좌 MDD 가드(HALT/
킬스위치), 자본 배분

레버리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— 수익과 MDD를 똑같이 키운다

리스크 관리 없는 배율 확대는 손실의 속도만 높일 뿐입니다



핵심 근거

- 1 **2배 레버리지** 2배 수익 그리고 2배 MDD → Sharpe(위험대비수익)는 불변
- 2 작은 누수(슬리피지)도 레버리지로 함께 증폭된다
- 3 → 실행을 먼저 잡기 전엔 레버리지를 올리면 안 된다

백테스트 곡선이 아무리 좋아도, 그 가격에 안 체결되면 복리가 깎인다

슬리피지와 체결 오차를 잡아야 실전 수익률이 완성됩니다

01

시장가 추격·주문 거부·슬리피지로 매 거래
조금씩 샌다

02

새는 만큼 복리의 분자가 깎여

실계좌가 시뮬과 갈라진다

03

자본 관리는 "얼마 거느냐"뿐 아니라 "실제로
체결되느냐"까지 포함

리스크 + 이익 = 손익비, 자본 = 그걸 오래 반복

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키워 자본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전략

**리스크(손실 작게)와 이익(이익 크게)
이 청산 규칙에서 만나 손익비를 만든다**

손익비

한 거래의 기댓값 / 자본 관리 = 그 기댓값을
오래·안전하게 곱셈

셋 중 하나만 빠져도 무너진다

리스크 **×** 한 방에 죽음 / 이익 **×** 서서히 죽음 /
자본 **×** 계좌가 죽음

어떤 전략을 봐도 세 질문으로 즉시 진단한다

리스크와 수익 그리고 자본 관리의 핵심 기준을 세우는 법

01

리스크

"이번에 틀리면 몇 R 잃나? 한 방에 죽지 않나?"

02

이익

"맞았을 때 충분히 크게 버나(손익비)? 일찍 익절하지 않나?"

03

자본

"전체로 얼마를 굴리나? 드로다운에서 살아남나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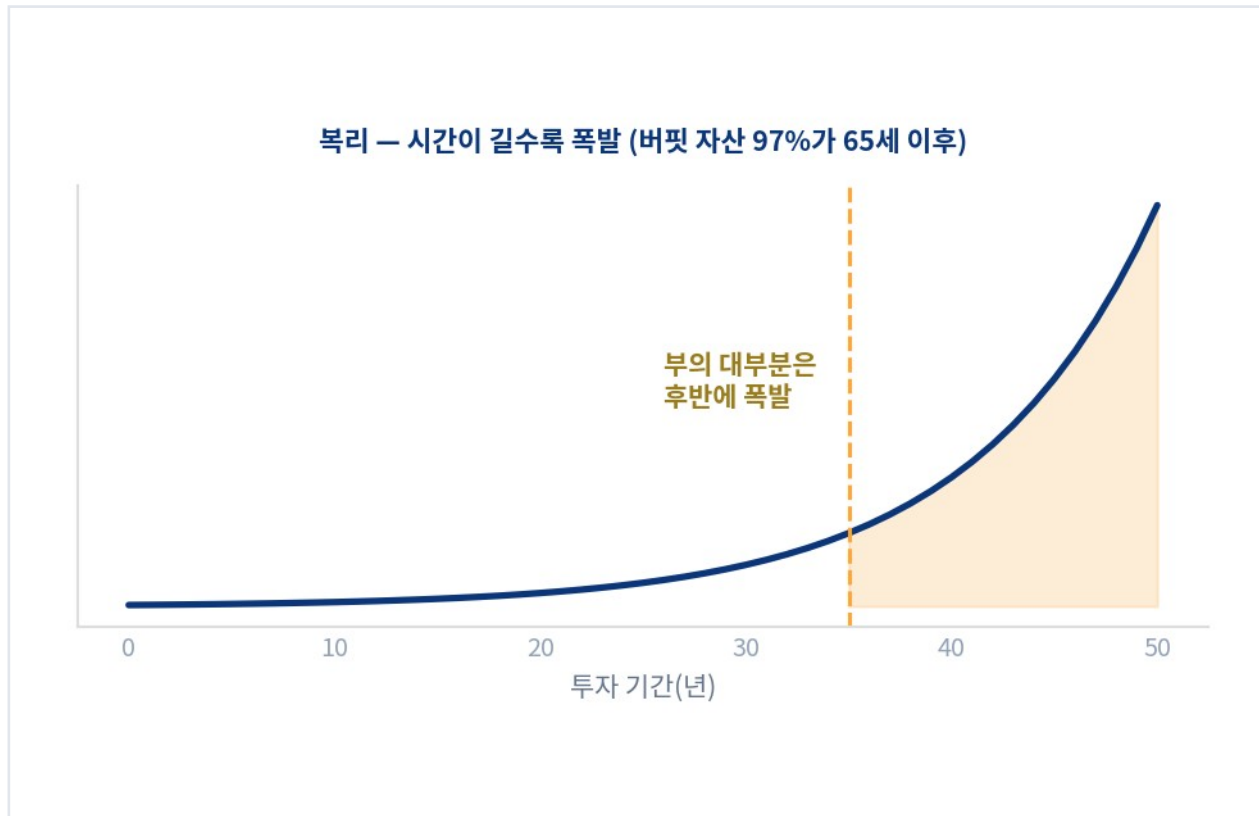
04

같은 검문대

→ 터틀이든 AI가 짠 전략이든 같은 세 질문으로 검문

부 = Edge × 위험관리 × 규율 × 복리(시간)

압도적 수익을 완성하는 트레이딩의 4가지 필수 성공 방정식



핵심 근거

- 1 **워런 버핏 자산의 97%는 65세 이후** 복리가 시간 위에서 폭발
- 2 **돈의 심리학(하우젤)** "아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"
- 3 청소부 로널드 리드(순자산 800만\$) vs 파산한 월街 임원 — 행동의 차이
- 4 **단, Edge 없으면 복리도 마이너스** Edge가 먼저, 규율이 오래 굴린다

손실은 작게(리스크) · 이익은 크게(이익) · 계좌는 오래(자본)

- 1 **셋은 목적·시점·단위가 다르다** 구분해서 사고하라
- 2 **리스크+이익** 손익비(기댓값), 자본 = 오래 반복
- 3 이 세 렌즈가 BLOCK 2·3 전체를 읽는 안경이 된다

05

기본개요

마무리

마법사의 한마디



"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, 틀렸을 때 가장 적게 잃는 사람이 이긴다"

수십 명 최고 트레이더의 공통 1순위 = 진입기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

— → 우리 3대 철학(리스크 관리)의 권위 인증

— 출처: Jack Schwager, Market Wizards 시리즈(인터뷰 공통 패턴)



좋은 트레이드 = 상방이 하방을 압도한다 (양의 스큐의 실증)

한 트레이더: 6년 연 280% 수익에 최대 드로다운 단 11%

— "큰 이익이 큰 손실보다 더 자주·훨씬 크게" = 우리 사분면 ②·양의 스큐 그대로

— 출처: Jack Schwager, Unknown Market Wizards(2020) — 이 인용은 (BLOCK 2에서 심화)

미션 — 내 전략의 기댓값을 계산하라

$E = W \times R - (1 - W)$ 에 내 숫자를 넣어 생사를 판정한다

마무리

- 1** **미션 1** 기댓값 E로 내 전략의 생사를 판정하라